



2 千年代에의 對應

政策發想의 大轉換을 促求함

李 賢 宰

오늘날 우리 人類는 宗教를 主軸으로 하는 異質 文化의 摩擦, 人口, 資源, 에너지, 環境汚染 등 各種 問題들이 複合的으로 作用하여 매우 深刻한 事案들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例外가 아니어서 그동안 急速하게 쌓아올린 工業文明이 우리들 生活에 끼쳐온 各樣各色的의 影響과 衝擊을 綜合的으로 評價하고 対処해야 할 重大한 時点에 이르렀다 하겠습니다.

“하이 테크놀로지” 時代로 表現되는 21世紀가 未嘗不 技術萬能· 效率優先이 制度化된채 人間疎外의 길로 내달려, 所謂 情報化社會의 逆機能이 관을 치게 된다면 이는 實로 可憐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藥品의 開發, 醫療技術의 進歩에 따른 平均壽命의 延長과 함께 高度技術革命이 가져다준 勞動時間의 短縮과 質的變化로 因한 生活時空의 擴大 現象을 潤氣있는 人間的交流와 健康하고 아름다운 創造的인 것으로 活用되게 誘導하는 政策이야말로 이제부터 政府가 맡을 最大 課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와같은 國民余暇生活需要에 對한 滿足度가 政府에 對한 大衆의 支持度로 反映될 날이 머지않아 到來할 것이라는 것은 可히 予想할 수 있습니다.

國立公園 등 天然資源의 保全과 함께 環境汚染의 防止가 當面 國家施策의 絶對 命題가 되는 所以라 하겠습니다.

經濟第一主義에 바탕하는 高度成長政策은 結局 政治의 成果를 GNP 成長率의 極大化에 集中케 하

였거니와 여태까지의 傳統的인 GNP 算出方式에서 是 測定可能한 여러 部門의 成長이 大氣와 물, 其他 自然環境에 미치는 莫大한 資本消耗를 전혀 計算하지 않았던 것이니 즉 國民總生産에다 環境被害를 제대로 合算하였다더라면, 成長率은 훨씬 낮은 數值였을 것이라는 것을 此際에 깊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自然資源의 保護와 大氣·水質의 積極的改善이야 말로 經濟的側面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 “近大化理論”의 泰斗로 公認되는 Rostow博士에 依해 이미 解明되고 있는 점을 새삼스레 吟味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에 依하면 大氣와 물의 質이 向上되면 그에 聯關된 疾病이 減少될 뿐 아니라 그 結果로 有効勞動量이 增大하며 또한 建物이나 築造物의 被害가 훨씬 줄고 修理費나 塗裝費用이 節約되며 水産資源의 供給을 增加시키는 등 여러모로 經濟的 利益이 發生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汚染防止 活動이 제대로 奏效하면 正確하게 셈할 수는 없지만 國民所得에 乘數效果를 가져오게 되며 美國의 경우 1960년대부터 國立公園 訪問者數가 每年 GNP成長率의 倍以上인 平均 8%를 웃도는 增加를 持續했다고 하는 興味있는 指摘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나 政策發想의 劃期的 轉換을 促求하는 까닭이 여기 있으며 다음 世代를 걱정하고 새로운 세기 2千年代를 겨냥하는 巨視的이고 幅넓은 英智의 指導者를 渴求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 있다 하겠습니다.

[本會理事·前國會議員(初代國立公園委員)〈株〉三星미놀타會長]